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創意性 開發

勤勉은 富와 成功의 열쇠는 되지 않는다. 99%의 怠(勤勉) 만으로 모자란다. 1%의 靈感(創意·智慧·아이디어)이 더해져야만 創造가 이루어진다.

○ 收斂思考의 反對는 ○○思考? 빈 강퍽 한 個의 活用法 적어보기

○ 創意性 開發 때에 제대로 하라.

0歲~3歲· 模倣期—無條件 받아 들인다.

4歲~10歲· 創造期— 智慧教育의 適期다.

11歲~· 鍛練期— 創意教育이 어렵다.

○ 創意性 開發教育이 時急하다. 사람의 頭腦機能을 簡單히 分類 하던

① 吸收力

知能을 吸收하여 消化하는機能

② 記憶力

知能을 記憶하여 再生하는機能

③ 判斷力

論理的으로 생각하는 機能

④ 想像力

創意力으로 생각하는 機能

위의 네 機能中에서 學習活動은 吸收力과 記憶力으로 하며, 判斷力과 想像力을 써서 생각하는 生活을

날마다 反復하고 있다. 이 네 가지 心理的 機能中에서 “무엇이 제일 重要한가?”하고 묻는다면 意見이 모두 다를 것이다. 날마다 生活과

作業에서 일어나는 問題를 處理하 자면 知識도 判斷力도 想像力도 各 各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學校教育에서는 知識과 判斷力을

學校와 職場의 事物에 대한 見解와 思考의 差異

	學校型的 思考	職場型的 思考
1	「~은 이다」라는 것이 前題 (=「BE」型的 思考)	「~을 한다」는 것이 前題 (=「DO」型的 思考)
2	「~이란 무엇인가?」 (=Why to be)	「무엇을 하는가?」 (=What to be)
3	「~은 이다」인 것은 왜 그런가? (=Why to be)	「~을 한다」에서 어떻게 하던 좋을가? (=HOW to be)
4	「왜 그렇게 될까?」 (=「因果」의 追求)	「~을 하면」어떻게 될까? (=「成果」를 追求)
5	「무엇이 어떻게 될까?」 (=傍觀者)	「무엇을 어떻게 할까?」 (=當事者)
6	問題가 주어진다.	問題를 找尋, 發見함, 만듦
7	답이 하나뿐이다. (正解와 模範解答이 있다)	답이 여러個(複數)있다. (正解가 없는 것이 보통)
8	定해진 解答法이 있다.	새로운 解決法을 생각한다.
9	어떤 方法이 바른가?	어떤 方法이 最高인가?
10	「正解」를 求한다. (=「바른가」어떤가?)	「成果」를 求한다. (=得「인가」아닌가?)
11	혼자서 問題를 푼다. (=「個人」이 中心)	여럿이 問題를 解決한다. (=「集團」이 中心)
12	自己를 위해 산다. (=利己)	모두를 위해 산다. (=利他)



강 신 복
(〈새생각회 회장〉)

가르치는 일에만 힘써왔고,想像力機能은 아예 생각조차 안했었다.

그 바람에 創意性은 말할 수 없 萎縮됐다. 이런 教育이야 말로 모 래城을 쌓는 教育밖에 더 되겠는 가!

일찌기 헨리 포드·피처는 “想像力을 안가지 精神은 望遠鏡을 안가지 天文臺와 같다”고 말했다.

「作業은 問題解決의 行爲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組織에서는 어떤 思考方式을 바라는가?」「어떤 行 動方式을 期待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자면 作業의 背景에 있는 事物을 보는 見解나 思考를 理解하지 않으면 애써 學校에서 익힌 「問題解決의 能力」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學校型」의 事物을 보는 態度와 思考法, 職場型의 事物觀察法·思考法의 差異가 어디에 있는가를 表로 알아보자. 여기선 주로 다른 面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職場에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묻게 된다.

學校는 「教育의 場」이니까 「○○이란 없는가?」라든가 「무엇은 어떤가?」를 배운다. 또는 「○○인 것은 왜?」 따위를 배운다. 좀 어렵게 말하면 學校에서 「事物의 因果關係를 追求한다」가 教育의 主된 目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學校時節에 몸어 익힌 것은 이 「○○은 무엇인가?」이거나 또는 「○○인 것은 왜 그럴까?」라는 「質問」에 대한 「對答」이다. 이것을 보통 「知識」의 틀로 알고 「經驗」을 通해서 외워온 터이다. 그래서 그 知識은 國民學校에서 中學校에, 다시 高等學校나 大學에 進學하면서 體系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職場에선 「因果關係의 追求」보다는 「成果의 追求」가 重視된다. 결국 「물건을 만든다」든가 「생각을 形으로 한다」든가, 成果를 올리는 것을 바라게 된다. 말을 바꾸면 學校에선

(가) 「무엇이 어째서 그럴까?」 (=What to be)

(나) 「왜 그렇게 되는가?」 (=Why to be)식의 見解와 思考가 中心이 된다. 그것에 대해 職場에선

(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What to be)

(라) 「어떤 方式으로 하는가?」 (=How to do)식의 見解와 思考가 中心이 된다.

이렇게 하면 創意性이 開發된다.

(1) 많이 讀書하라.

讀書量은 國力과 正比例한다. 册

13	判斷의 基準이 안 바뀐다. (=絶對)	狀況에 따라 判斷이 바뀐다. (=相對)
14	얼마나 들었는가? (=「費用」志向)	얼마나 들었는가? (=「利益」志向)
15	어느 程度 알았는가? (=成績·點數)	어느 程度 했는가? (=實績·金額)
16	「아는 사람」을 重視 (=理解力·知識)	「하는 사람」을 重視 (=實行力·經驗)
17	어느 程度 알고 있는가? (「인풋」型의 知識)	어느 程度 쓸 수 있는가? (「아웃 풋」型의 知識)
18	어느 程度 외우는가? (=記憶力)	어느 程度 생각하는가? (=思考力)
19	어느 程度 아는가? (=「形」을 안다)	어느 程度 되는가? (=「形」을 만든다)
20	「知識人間」이 要求된다. (=머리는 「知識의 倉庫」)	「發想人間」이 要求된다. (=머리는 智慧의 工場)
21	「批判力」이 있는 사람을 重視 (=「否定」을 前題)	「創意力」이 있는 사람을 重視 (=「肯定」을 前題)
22	事物의 「마이너스」面에 着眼 (=「否定」을 위한 批判)	事物의 「플러스」面에 着眼 (=「肯定」을 위한 批判)
23	事物의 「限界」를 追求	事物의 「可能性」을 追求
24	「反對意見」을 말한다. (=「解釋」을 重視)	「代替案」을 낸다. (=「事實」을 重視)
25	「안된다」는 理由를 생각한다. (=「그래서 못한다」)	「되는」方法을 생각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은 知識의 寶庫, 情報의 源泉이다. 그리고 讀書은 研究의 基本이다. 讀書하지 않고 向上·發展하길 바랄 수는 없다.

남보다 앞서려면 손에 冊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더욱더 앞서려면 손에서 冊을 떼지말라.

(2) 많이 質問하라.

모르면 물어라. 아주 모르던 質問도 못한다. 質問은 思索의 表現이다. 활발한 質問은 뛰어난 注意力, 記憶力, 思考力의 綜合된 빛이다.

(3) 많이 旅行하라.

旅行을 많이 하라. 名古蹟, 民俗村等 새로운 風物을 많이 接하라.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잘만 活用하면 모두 創意力 開發의 소중한 材料가 된다.

(4) 好奇心을 가져라.

無關心은 創造의 敵이요, 이것을 봐도 「별로」저것을 봐도 「별로」하는 「별로人生」은 向上發展없는 「말바닥人生」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5) 固定觀念을 버려라.

先入觀을 가지고 보려는 固定觀念에 사로 잡히면 올바른 思考活動을 못한다. 올바른 思考活動없이 바람직한 創造活動을 할 수 있겠는가? 固定觀念은 思考의 癌이다.

(6) 記錄에 미쳐라.

이 세상에서 記錄하지 않고 成功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손으로 생각하는 作業」이 記錄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記錄하라. 떠오른 생각은 20分만에 그 40%를 24時間後엔 그 70%以上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문득 생각나면 바로 불펜을 꺼내게 되도록 習慣이 되어야 한다.

기록된 메모는 分散되게 하고 쓴 것을 後日 다시 검토하는 研究, 불 일이 끝난 기록은 지워버리는

자질구레한 實行은 메모를 살리는 길이다.

記錄은 後日에 아이디어의 材料가 된다.

(7) 발바닥이 닳도록 蒐集하라.

發明을 完成시키자면 着想의 量을 산처럼 쌓아올려야 한다. 좋은 暗示 나쁜暗示, 큰 暗示, 작은 暗示를 강그리 쌓아올리는 作業이 發明(創造)이다.

量, 量, 量……그 속에서만이 成功의 열매를 딸 수 있다. 아무리 서투른 捕手도 표적에 1萬번 쓰면 名捕手が 되게 마련이다.

(8) 안테나를 치고 다녀라

開發研究員은 限定된 時間內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어 實行에 옮겨야 한다. 그러자면 自己에게 주어진 課題에 대해 생각하고 苦惱하고 調査하고 實驗하여 모든 角度에서 功擊해야 한다.

그래서 그 테마에 關心되는 事實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께 아무런 關係없는 生活環境이나 日常生活이건 讀書中인지라도 한瞬間에 關聯을 알아 차려 곧 바로 聯想하여 주어진 課題가 한 발 解決의 길이 되도록 항상 안테나를 치고 다녀야 할 것이다. 주어진 研究時間에 의자에 털석 주저 앉아 그제서 테마가 뭐였더라 하는식의 時間消費는 안된다. 必要한 것은 그 훨씬 以前에 通勤길에 이미 눈앞에 나타났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開發研究員은 觀察力과 注意力이 소중하다.

조그만 異常이나 類似한 現象,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보아넘기기 쉬운 問題點等, 觸發의 聯想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뛰어난 注意力이다. 問題意識을 가지고 가만히 보도록 意識하여 訓練하라.

(9) 될수록 많이 接하라.

現場, 現物, 그러니까 어디나 무

엇이나 모두 아이디어의 源泉이 된다.

아이디어는, 발로 얻고, 듣고, 보고, 당고, 試驗해 보는 行爲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基本이다. 그 主된 源泉은, 自己自身の 不滿, 生活이나 作業上的 不滿足, 家族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從業員의 提案

販賣員이 가지고 돌아오는 顧客의 苦衷, 要望, 營業日誌, 단골인 經營者, 從業員의 希望, 最終消費者의 行動意見, 편지 앙케이트 返信, 應募, 雜誌

技術說明會, 新商品의 說明會 展示會의 競爭商會, 工場見學

調査要員의 報告, 質問書의 記錄, 메모, 先輩 친구 同志會의 雜誌講演會, 海外的 親戚 친구 去來處, 그 購入品 所持品

學術論文, 海外專門紙 海外留學 海外觀察, 海外旅行, 國內의 外國人, 컨설턴트, 他私의 세일즈맨, 專門調査機關, 發明特許協會, 디자인事務所, 發明人, 技術情報, 新素材의 發明, 發明展示會, 단골 또는 小賣店 既存 아이디어의 專用

技術雜誌 經營雜誌, 業界誌等과 그 設者 工業試驗所, 工業獎勵館, 大學, 下請業者, 購入處, 모니터

라이벌의 카탈로그 廣告, 陣列, 專門廣告 特許廳資料, 公報, 發明支 施斡旋資料, 他社가 버린 아이디어, 돌보지 않는 特許, 技術講座, 經營講座, 發明講座, PR映畫, 新聞, 라디오, TV, 百貨店, 過去の 노트, 半店, 메모용紙, 落書, 電話簿, 新聞等이 있다. 꼭 갖춰야 할 것은 問題意識이 있어야 하고, 記憶力이 좋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發展志向的이다.

손엔 冊, 주머니엔 筆記道具, 어깨엔 寫眞機, 배게머리엔 錄音機, 冊床엔 가위와 풀을 常備한다. (<>)